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소식지 1호

푸른 지대



목차

01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첫 이야기	04
----------------------	----

김종길 | '우리 마당을 트고 판을 두들겨요!'

02 · 푸른지대 사람들	08
---------------	----

INTERVIEW

03 · 함께하기	13
-----------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X 아키비스트 김진주

04 · 전환하기	23
-----------	----

강원재 | '전환사회, 잎파랑이 경기청년문화창작소를 시작하며'

05 · 그림으로 보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	27
------------------------	----

INFOGRAPHICS

06 · 푸른지대 청년모임	33
----------------	----

07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소식	37
-------------------	----



우리, 마당을 트고 판을 두들겨요!

김종길 | 문화재생팀장

심훈의 『상록수』에서 동혁은 “오오, 너희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구두 싱싱허구나! 저렇게 시푸르구나!”라고 감탄했지요. 늘 푸른 나무를 보면서 외치는 늘 푸른 실천 의지가 아닐는지요. 소설 속 동혁은 심훈의 큰조카 심재영, 채용신은 최용신이 실제 모델이었어요. 최용신은 YWCA 소속으로 당시 화성시 반월면 샘골 (천곡리. 1986년에 안산시 사동으로 편입됨. 1995년 반월면은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에 분할 편입되면서 사라짐)에 파견되었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학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 10리 길을 걸으며 아이들을 가르쳤죠.

샘골이 『상록수』의 무대예요. 최용신은 스물다섯에 죽었으나 그 ‘푸른 열’은 수원의 푸른지대 청년들이 다시 이어갔어요. 1946년 8월 국립종합대학안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정식 발족하고 9개 단과대학이 편성됐을 때 수원농림전문학교는 농과대학이 됐죠. 이 대학은 푸른지대 상록캠퍼스로 불렸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1970년대 중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저항한 김상진 열사가 있었고, 그룹사운드 샌드 페블즈(Sand pebbles)가 탄생했고, 1980년대 초반에는 노래패 매김소리가 결성됐죠. 딸기밭과 포도밭 사이의 서둔야학도 밤마다 불을 밝혔고요. 그러나 2003년 9월 농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상록캠퍼스는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12년 9개월 동안 푸른지대 상록캠퍼스는 잠들어 있었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푸른지대의 ‘푸른 열’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시작했고, 드디어 6월 11일 ‘경기상상캠퍼스’의 이름으로 다시 오픈하게 됐어요. 상록캠퍼스의 역사는 이제 상상캠퍼스의 역사로 다시 써지게 될 거예요. 또 푸른지대, 푸른 열의 정신은 경기청년문화창작소에서 기획하는 생활문화와 다사리문화기획, 그리고 청년창작을 위한 실험을 통해 이어질 거예요. 모두 함께 나누어 누리는 문화와 예술은 최용신의 꿈이었을 테고, 그것은 상록의 이상이기도 했으니,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장인들이, 예술가들이 한데로 어울려 마당을 트고 판을 두들겨야 하지 않을까요?



푸른지대 사람들



김영국 | '샌드페블즈' 드럼주자

“창작소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샌드페블즈 6대 드럼주자 김영국이에요. 1977년 대학가요제 대상수상 당시 조정학과 2학년이었어요. 샌드페블즈는 1971년 농생대의 동아리로 창단된 후 후배 멤버들에게 악기를 넘겨주는 전통을 올해 44대째 이어온 서울대학교의 명문 동아리입니다. 정기연주회 날에는 수원시내 고등학생들이 열성 팬이 되어서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던 일들이 생각나요. 전봇대에 공연포스터 붙이고 오면 호빵을 사주곤 했죠.

아무래도 농생대 시절 중 가장 좋았던 건 자연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공부하고 청년기의 시작을 한 게 탁월한 환경이었죠. 교내 연못과 후문 뒤의 딸기밭이 기억에 남아요. 기숙사 옆 과수원은 밤에 과일서리 하기에 좋았죠!

창작소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배고파야 예술이 나온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래 없이 힘든 청년들의 아픔이 창조적 문화와 음악으로 열매 맺어진다면 수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지금의 고난을 불평대신 담담함과 긍정적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동시대 청년들에게 카타르시스적 치유제가 될 것 입니다.



송혜진 | 지역주민

“주변에 오기 좋은 곳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아요”

저는 딸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곳에 와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왔어요. 주변에 오기 좋은 곳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아요. 특히 방금 들은 어린이 책 놀이터는 정말 좋게 생각되네요. 물론 정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산책로 중간에 수돗가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숲에서 이것 저것 만지며 논 뒤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럼 더욱 위생적인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종화 | 지역주민

“상록 나무도 있고, 쭉도 있고,
뽕잎도 있고, 이렇게 깨끗한 곳은
이 주변에 여기 밖에 없어요”

1996년부터 이곳에 살았어요. 저는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틈나는대로 와요. 저는 여기 ‘짱이라고’ 생각해요. 비가 올 땐 우산을 쓰고 와도 좋아요 (웃음). 상록 나무도 있고, 쭉도 있고, 뽕잎도 있고, 무엇보다 공기 맑은 곳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곳은 이 주변에 여기 밖에 없어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창작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예수업이나, 노래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막혀 있는 곳도 들어가 보고 싶어요. 구석구석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희주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지금 창작소를 말하자면 운영 방향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원래 청년들의 배움터였던 곳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1982년까지 농대를 다녔습니다. 기숙사 건물이 농대 밖으로 이전한 것 외에는,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과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십여년 방치되어서 잡풀이 많은 것 빼고는 그대로거든요(웃음).

1980년 5월, 봄이라는 이유로 거의 매일 시국집회가 열렸어요. 샌드패블즈 친구들과 같은 방을 써서, 밤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죠. 또 실습장에서 실험을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데, 선배들의 명령으로 매일 논 메고, 밭 갈고 하며 처음으로 농사를 직접 지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선배들이 재미있는 심부름을 많이 시켰죠. 밤에 놀다 술이 떨어지면, 바둑 두알을 주면서 2천원 짜리 술을 사와라 하면서 말예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술을 사오면, 선배들은 이미 까무룩 잠들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 보면 머리맡에 선배들이 2천원을 두고 가셨죠.

지금 창작소를 말하자면 운영 방향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원래 청년들의 배움터였던 곳이기도 하니까요. 좀 더 프로그램이나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박재우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비원

“여기 있는 큰 나무들이
이곳에서 자연적으로 자라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생대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과 유치원 어린이들, 재활원 사람들 등 지역주민들이 자주와서 산책을 많이해요. 수원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인위적으로 나무를 키우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푸기다방’을 열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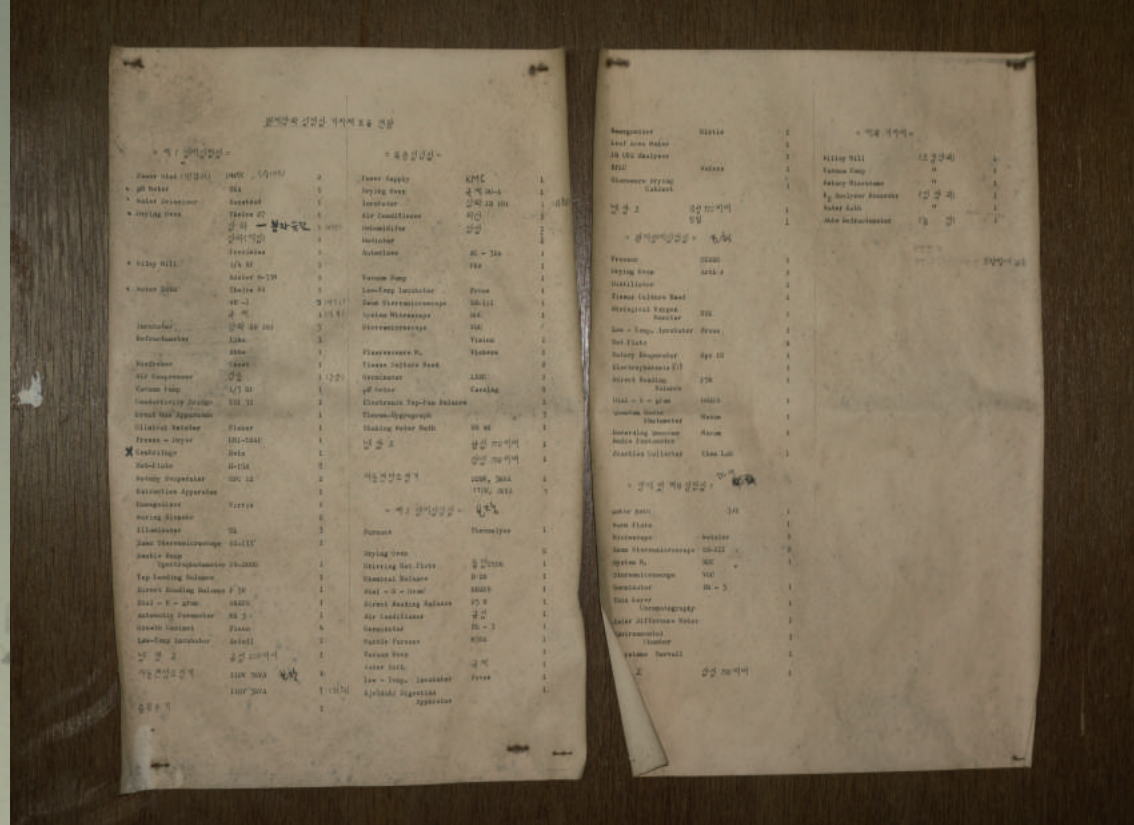
김진주 | 아키비스트

“푸기다방?” 2016년식 어법으로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줄여 부른 말이다. “푸기다방”은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서둔(수원)캠퍼스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 작은 아카이브 전시이다. 아카이브는 본래 지속적인 보존을 전제로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푸기다방은 박물관처럼 전문적인 절차나 안정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일시적인 ‘프로젝트’에 가깝다. 그런데도 푸기다방을 기획하고 준비한 까닭은 어느 하루(2015년 9월 15일) 옛 농원예학관을 담은 이 사진들이 말해준다. 옷걸이와 액자의 흔적들, 창문에 붙여진 비닐 시트의 꽃문양, 레트로 스타일의 쇠창틀, 먼지와 곰팡이를 먹은 원예학과 실험실 기자재 보유 현황표,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am Abend und am Morgen

(저녁에도 아침에도 네가 그렇듯 널 사랑해)”라고 쓴 낙서, 벗겨진 바닥 타일과 무심하게 놓인 유리실험관과 나뭇가지와 먼지가 순간 만들어내는 장면들...

이 건물은 10여 년 가까이 비워져 있었다. 2015년 늦은 가을에서 이 른 겨울, 그 방들은 이 흔적들을 비워내고 ‘청년문화창작소’로 다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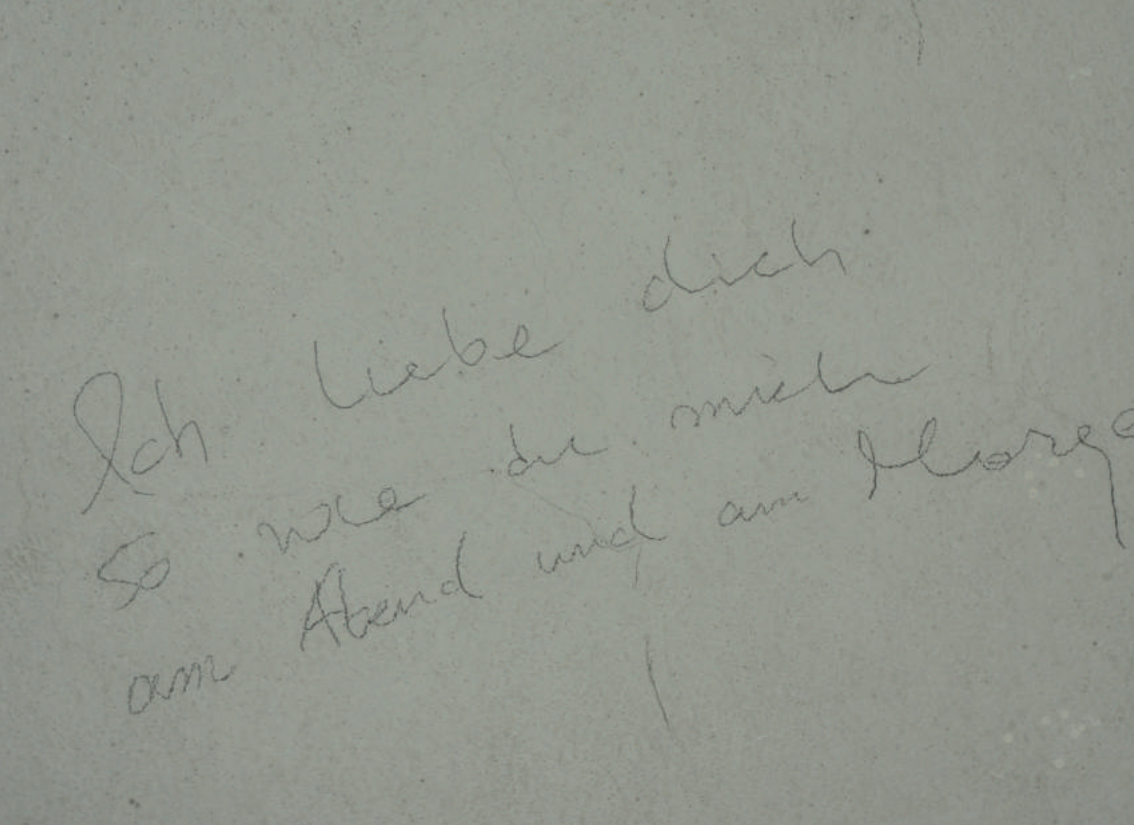


늘 시간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흐르는 방향은 하나가 아니다. 미래를 향한 시간이 있었다면, 여기 새로움을 품기 위한 변화로 인해 사라질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과거로 향한 시간이 있다. 나는 그 시간을 “푸른 시간”이라고 부른다.

“푸른 시간”은 상록의 정신을 담은 옛 농대 캠퍼스에서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서수원, 서둔야학과 같은 여러 night school, 딸기밭 푸른지대와 서호의 청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들의 부모, 형제, 이웃이 만드는 공동체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 공동체의 시간을 호출(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수집하고, 기록하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보존하기”를 디자인어, 현대미술가, 사운드 아티스트와 함께, 그래픽으로, 조각으로, 설치로, 영상으로, 사운드로 선보인다.

늙고, 낡고, 오래된 것은 요즘 사람들이 주름과 푸석한 피부를, 동네 폐가를, 또 누군가의 무덤이나 시신을 대하는 것처럼 삭제하거나, 멀리하거나, 두려워 할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 사라짐을 박제하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잘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것들은, 그들은 사라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청년이라는 새로움을 위해 자리를 내어줄 것이고, 또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전환사회, 잎파랑이 경기청년문화창작소를 시작하면서 ...

강원재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아트디렉터

신자유주의, 들어보셨나요? 자본이 자유롭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개인이든 국가든 윤리나 합리성 등의 기준으로 자본의 움직임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본이 원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뭐라도 가능해야 하니까요.

정치적 이념이나 윤리적 가치란 게 없어요. 그러니 일관성이 없는 듯 보여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저개발국가에 컴퓨터 보급과 교육 봉사를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는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밀림을 불태우고 자신들이 보급하는 컴퓨터의 부품이 되는
원료를 캐 가는 게 신자유주의죠. 붕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농부들의

(논에 물이 마르든 말든 선조대로부터의 자연유산인 지하수를 사익을 위해 개발하거나
강을 막아 댐을 개발하고 물을 팔아먹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일관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굉장한 일관성이예요. 그래서 사랑이나 우정, 돌봄 등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신자유주의 사회는 돈 앞에
윤리적 가치나 정치적 지향을 갖지 않으니깐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30여년쯤이 되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의 삶과 궤
적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죠.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
우치는데 굳이 학교까지 다닐 필요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도 10년 이상을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 없는 지식들을 익히느라 고생이 참 많았어요. 더 억울한 건 그렇게 고
생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니가 좀 더 잘나면 된다”는 식의 컨설팅이
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위로를 받고나면 자존감마저 무너지죠. 희망도 없어요. 과
학기술의 발전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90%가 사라질 거라는 ‘과장된?’ 전망도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지금 배우고 익히는 지식과 기술이 20년 내에 쓸모없어진다는 저주니까요.

그러니 ‘쓸모없어 질’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법을 배워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죠. 취업이나 취직보다는 창업하고 창직하는 법을 익힌 사람은
어디서든 먹고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그 가능성을 문화와 예술로 어울려 놀면서 실험하고 증언하는
곳이 되려고 해요. 왜 굳이 문화예술이냐면 제일 ‘쓸모없다’고들 하는 활동이니까요.

문화예술인들의 연수입이 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걸 보면 알아요.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망쳐 놓아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하는 지금 시대에는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곧
가장 가치로워 질 거예요. 현실에 발 딛고 밥벌어먹고 살아야 하지만 저 피안의
노스텔지어를 꿈꾸지 않는 삶은 공허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더불어 살지 않으면
외로워 살 수 없을 테니까요. 현실과 이상의 간극, 사람사이의 관계를 연결하고 완성하
는 힘이 문화예술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청년. 환경만 주어진다면 청년은 자기 하
나 먹고 사는 양보다 훨씬 많은 생산으로 개인과 사회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
는 믿음이 제겐 있어요. 2003년 서울대 농생대가 관악으로 떠난 수원 서둔동 자리에서
시작하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가 태양과 바람, 그리고 물이라는 자연에너지를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화학에너지로 전환시켜내는 잎파랑이(엽록소)의 역할을 하게 될 청년
들을 널리 초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곳에 조성되는 목공, 자전거, 적정기술, 음악,
양조, 출판, 디자인 공방에서 예술과 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면서 돈은 별지만 삶
을 파괴하는 생산이 아니라 돈도 벌고 삶도 살리며 삶의 자리인 가까운 마을을 변화시
켜가는 협동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려 해요. 올해는 이미 조성된 공간에서 시범사업을
함께 해볼 것이고 내년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텃밭과 새롭게 조성되
고 있는 공간에서 본격적인 창직과 창업을 시작할 거예요. 요즘 창작소

주위를 좀 걷다보면 2003년 이후 이곳을
지켜온 우거진 숲에서 이름 모를 새들과
곤충, 그리고 가끔은 너구리와 같은
조금 큰 짐승도 만나요. 그 곁에서
잠시 지켜보다 보면 현실에 치인 마음
속 웅어리가 저절로 풀려가는 게 느껴져요.
잎파랑이 경기문화창작소에서 일하고
놀고 쉬고 공부하면서 스스로와
서로의 삶을 생동케 하는 창조적
작업과 창직, 창업을 함께 실험해갈
청년과 청년스러운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 -과학대학 부지 역사



교통정보

수원역으로부터

도보 | 20-25분

버스 | 10-15분

푸른지대 정류장
730, 720-2, 88, 88-1

자가용 | 5-10분



김상진 열사는 누구인가요?

75년 4월 학원자율화 문제와 동아일보의 언론자유 문제로 인해 학생총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서울대 농과대 학생 3백여명의 시위대열이 가두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장 황연수군과 축산과 4년 김명섭군이 연행되었는데 이에 분노한 축산과 학생들은 연행학생 석방을 위해 총장에게 공개장을 발송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4월 10일자로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3백여명의 학생들은 단식은 연기하기로 했으나 해산하지 않고 자유성토대회를 시작했다.

자유성토대회 3번째 연사로 등장한 김상진 동지는 '양심선언문'을 읽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20cm가량의 과도를 품안에서 끄집어내어 활복을 하였다. 동지를 택시에 태우기까지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동지의 요청에 따라 애국가를 불러주었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급급차 속에서 운명했다.

[출처] 박정희에 대항하여 활복자살한 서울대 김상진열사 | 이시람

부지 정보



면적

268,487 m²(81,350평)

경기도: 152,070 m², 서울대: 116,417 m²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캠퍼스



하루 평균 방문인 수 → 50-60여명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ATTENTION!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강아지똥과 쓰레기는
꼭 알맞은 장소에 버려주세요!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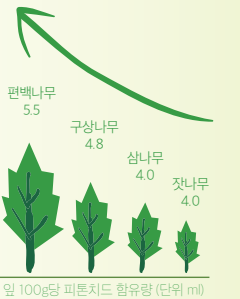
피톤치드?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향균 물질입니다.
'피톤치드'는 공기를 정화시켜 쾌적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 강화, 살균작용의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오늘 산책하며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셔보는게 어때요?

피톤치드는 침엽수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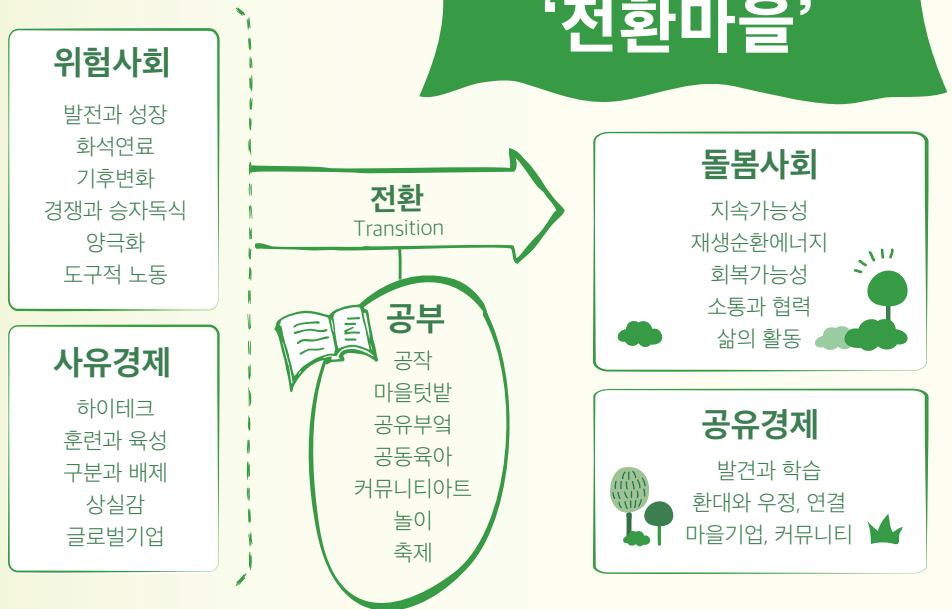
피톤치드는 침엽수류의 나무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침엽수 중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수목은 무엇일까요?

(출처: 경기도 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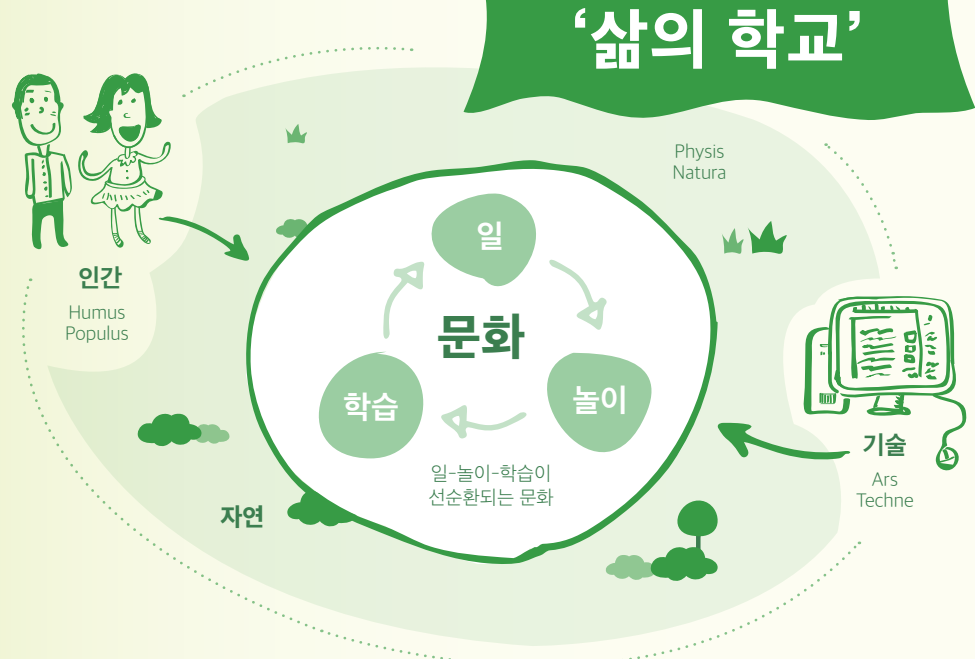


농생대 부지는 문화융합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경기상상캠퍼스'로 재탄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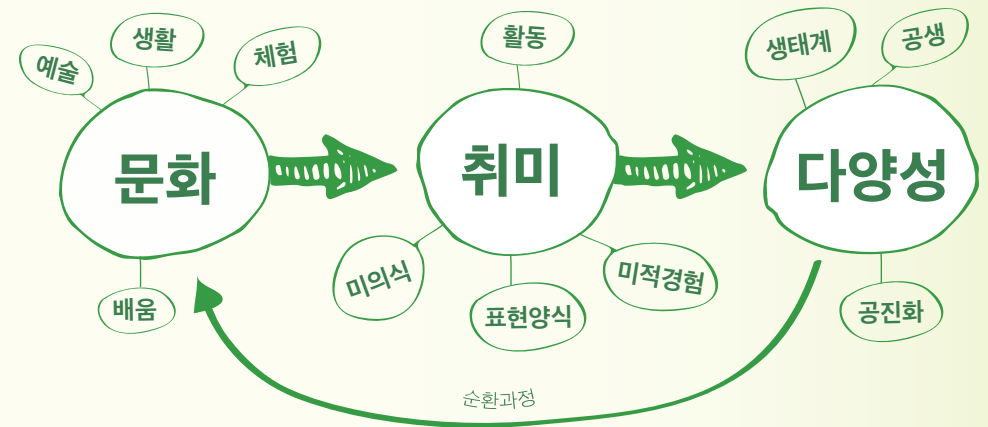
● '경기상상캠퍼스'의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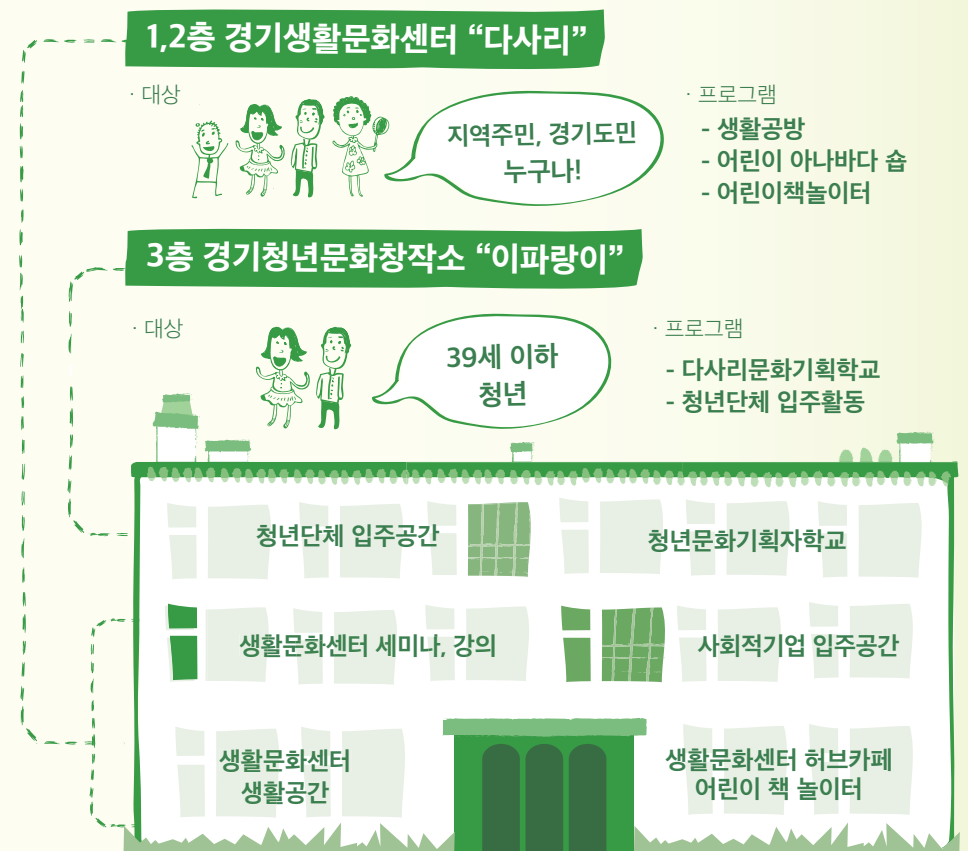
● '경기청년문화창작소'의 지향점



● 경기청년문화창작소의 지향 과정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공간계획



푸른지대 청년모임

다양한 청년들이 푸른 지대에 모였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나누며, 경기청년문화창작소와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푸른 지대를 꿈꾸었습니다.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청년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생각으로 푸른 지대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청년모임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청량한 바람이 푸른 지대로 오기를 바랍니다.



*본 기사는 2015년부터 진행된 4회의 청년모임(청년모임 농장, 12차 사운드실명회, 청년단체 네트워크 창간파티 2인 1집)의 참여 단체들의 의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운드브릿지 | 음악 및 영상

청년팀과 사업연계시 허울만 좋은 사업연계가 아닌 정말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예술/문화 계열은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나 현장에서 뛰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계열 중 하나라 단순 이론 전수가 아닌 프로그램 기획이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계 사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뮬소프로덕션 | 시각예술

자신의 창작물을 부단히 만들어내고 싶은 공간을 구하기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주 지원을 원하는 창작자들을 위해 **최소비용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관리비와 공간 비용을 책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야가 융합되는 추세여서 함께 피드백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멋진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전거문화살롱 | 공연예술

10년 이상 다양한 마이너 문화들과 창작자들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창작 공간이 국내에선 빨리 성과 내야하는 결과중심이라 1~2년 만에 하드웨어만 덩그러니 만들어져 알맹이 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망하는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10년 바라보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원의 청년들이 부디 스스로 일어나길!**

교빠들 | 음악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음악적인 공간이 다양한 장르로 많이 분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연습실, 소규모공연장, 음악 스튜디오, 개인 및 팀 작업실, 녹음실 등등 음악적으로 굳이 다른 곳에 가서 하지 않아도 한 곳 안에서 자유롭게 앨범도 작업하여 음원을 만들고, 또 그 곡들을 연습하여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음악적 문화체험의 기회도 높은 질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보면 연습도 더 오래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음악적인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 같은데 각자 막차시간과 거리의 문제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는 없겠지만 자문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기숙사에 밴드나 여러 프로젝트 팀들이 일정금액을 내면 같이 먹고자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000km | 독립출판

마켓 등 기획 및 제작 공방,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입주한 청년팀들이나 외부의 청년팀들이 장기적으로 참여하면 청년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창작소 운영 뿐만 아니라 기획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학생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출력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 뿐만 아니라 시각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출력과 제본을 직접해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면 주변의 창작자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살롱시소 | 음악

공연장으로서 보다는 좋은 레코딩 스튜디오 및 합주실이 갖춰져 있다면 **많은 뮤지션들이 애용할거라 생각합니다.**

옥상 공연장은 날씨의 제약이 있어서, 1층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연장화하고, 필요시 가변적으로 옥상을 공연장화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백수남 실수녀 | 문화기획

수원 농대 서둔동에 기억을 살리고, 서둔동의 기억을 간직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지역민들을 위로, **공정적인 소리(음악)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창작자들이 청년문화창작소에서 자신들의 재능으로 즐겁게 뛰어들면 좋겠어요. 저희도!



◆ **부천문화공간500/50** | 문화기획

청년들의 입장에서 건물을 활용하시려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기보다 비어있는 공간, 혹은 **‘목적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니다보니 창작소만의 ‘볼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사 중 봤던 공간을 건물 본연의 느낌을 살려 파티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단체들이 결합할 수 있는 ‘이중교배 컨퍼런스(가칭)’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달무늬** | 음악

입주자나 시설 사용자 외에 주변 지역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도 구경 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부지가 나무나 잔디 등 자연적 요소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린** | 프로젝트 기획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청년문화창작소는 농대부지의 사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사업을 경기도내의 ‘청년성’을 지닌 공간의 네트워킹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각 **공간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모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 **극단꾼** | 마임(연극)

빈 공간이 여러 사람의 만남의 장이자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곳곳에 큰 창이 있고 숲이 보이는 전망 좋은 위치가 많아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아늑한 빈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단체들에 대한 컨설팅과 과정 중심의 기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결과물이 없더라도 서로를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심은 있었지만 실험해볼 여건이 안되어 시도해보지 못했던 작업을 시도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끈기있게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돕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 **1도씨** | 출판

무(無)목적 창작 스튜디오. 아직 리모델링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원형 보존하여, 무목적의 창작 스튜디오로 개방할지 권유합니다. 사진, 영상, 전시 등 시청각 작품을 위한 공간으로 요긴할 것 같습니다. 그달의 매거진 등을 정기구독 할 수 있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전시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룩스비비** | 디자인,예술

창업자들을 위한 사무실과 작업실 외에 **여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교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힐링 공간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힐링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요가 매트, 아로마 향초, 초록색과 파란색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색상의 벽지 등으로 구성하여 비싼 일상 속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구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0장** | 예술

경기도민들이 자주 방문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수품 관리(야생동물 보호 등)와 주변 교통 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준비하여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이용할 수 있는 목공소 및 공연장을 만들거나 편의 시설과 카페 등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피큐알북스** | 독립출판

참가자중 한분이 말했듯 외딴섬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공감합니다. 저도 스타트업과 많은 협업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그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장비나 인프라/자금문제가 아니라 대중에게 소비되고 유통되는 라인을 구축하지 못했을 때 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대중들과 기업, 단체들이 와서 입주기업들과 협업하고 입주기업의 창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기업행사 참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써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원하는 곳에 가서 창작물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 또한 있으니 함께 이야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7777** | 프로젝트

농생대 부지를 향한 view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View의 방향을 살리고 활용한 야외 이벤트 공간 및 자유로운 작업,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과 제한들이 청년단체들로부터 나왔으면 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단체 및 다른 청년단체들과 경기문화재단의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소식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문화를 통해 지역/도시재생을 활성화 시킬 경기지역 청년 기획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문화'기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를 거점으로 청년 기획자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기는 5월 선발되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2기는 8월 선발되어 2017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의 | 031-296-1986
페이스북에서 "다사리문화기획학교" 검색



청년문화창작소 리모델링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캠퍼스 부지에 있는 농화학과와 농업공학실을 적정기술랩, 자전거랩, 목공랩, 디자인랩, 뮤직랩, 작업실 등의 공간이 있는 청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7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 1회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경기청년문화창작소에서는 전국의 청년문화기획자, 청년 활동가,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젊은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소리를 모아보는 전국 청년문화포럼과 청년문화페어, 젊은이들의 고뇌를 해소시켜줄 신명나는 뮤직페스티벌을 푸른 가을과 함께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다사리 | 프로그램 안내

● 생활공방 프로그램 "손.마.담"

경기생활문화센터_다사리 1층 손살이공방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손으로마음을담아요" 생활 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디퓨저, 손뜨개, 북아트, 인두화, 가족공예, 폐자재를 활용한 목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공예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 책 놀이터 (상시운영)

경기생활문화센터_다사리 1층 어린이 책 놀이터 공간에서는 동화구연 및 한 뼘 공연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 아나바다샵 (상시운영)

경기생활문화센터_다사리 1층 공간에 어린이 물품 베품시장은 아나바다샵이 조성됩니다. 어린이 아나바다샵은 장난감, 동화책, 롤러브레이드 등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소식지 1호 푸른지대

기획	경기문화재단
총괄	박희주 (문화예술본부장)
예술감독	강원재
책임	김종길 (문화재생팀장) 박정호 (책임큐레이터)
진행	조민우
업무지원	창작소 강유리, 서영진, 이승진, 이현철, 전수린, 정홍택, 한수정 문화재생팀 이진실, 조지연, 장희주
경비	박재우, 이태영, 이해룡
미화	이병환, 이승영, 전정숙, 정연모, 황옥연
전기	김태호
기계	임성준
편집	40000km
사진	오린지
디자인	김진아
포스터디자인	피큐알박스
아키비스트	김진주
도움주신 분들	샌드패블즈, 박재우, 박희주, 송혜진, 이종화, 사운드브릿지, 코뿔소프로덕션, 자전거문화살롱, 사만키로미터, 살롱시소, 백수남 실수녀, 교빠들, 500/50, 달무늬, 가린, 극단꾼, 1도씨, 룩스비비, 0장, 피큐알박스, 6기역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김현태)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후원	경기도
발행일	2016. 6. 11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청년문화창작소)

본 매거진은 경기청년문화창작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